

2007년 일본 디지털콘텐츠시장 전년대비 3.4% 증가한 2조 6,947엔

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(Digital Content Association of Japan: DCAJ)는 2008년 9월1일 2007년 일본 국내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를 발표하였다. 이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일본 콘텐츠산업전체 시장규모는 13조 8,180엔으로 전년대비 0.3%증가 하였다고 한다.

디지털콘텐츠는 2조 6,947엔으로 전년대비 3.4%가 증가하였다. DCAJ에서는 향후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아울러, 2008년에는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는 2조 8,870엔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디지털콘텐츠를 유통미디어별로 구분하면 DVD 및 CD 등의 패키지로 유통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69.3%로 압도적으로 많다. 이어서, 휴대전화에 의한 유통이 19.5%, 인터넷을 통한 유통이 11.2%이었다. 다만, 패키지의 유통이 해마다 감소하는 한편, 인터넷 및 휴대전화에 의한 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DCAJ에서는 향후 유통미디어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.

콘텐츠종류별로는 영상콘텐츠가 7,897엔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음악콘텐츠가 7,677엔, 게임콘텐츠가 5,965엔, 도서·화상콘텐츠가 5,408엔으로 그 뒤를 이었다.

영상콘텐츠는 인터넷의 광대역화 및 휴대전화요금의 정액제 등으로 이용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인터넷송신이 444억엔(20.8% 증가), 휴대전화송신이 1,033억엔(41.2%)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.

음악콘텐츠는 음악송신을 포함한 인터넷송신이 466억엔(30.6% 증가), 휴대전화를 통한 송신이 1,633억엔(1.9% 증가)으로 나타나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장규모가 가장 큰 패키지SW는 전년대비 5.4%가 줄어들어(5,578억엔)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.

도서·화상 콘텐츠는 전자사전을 포함한 패키지SW가 2,392억엔(0.4% 감소), 인터넷송신이 1,264억엔(0.1% 감소)으로 전년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지만, 휴대전화에 의한 송신이 1,752억엔(33.6%)으로 큰폭으로 증가하였다.

<출처>

- o 増田覚, 『2007年国内デジタルコンテンツ市場は2兆6947億円、DCAjが推計』, Internet Watch, 2008.9.1
- o 平野 亜矢, 『2007年のデジタルコンテンツ市場は前年比3.4%増の2兆6947億円』 ITPro, 2008.9.1